

조화이론 중심의 한국어 중첩 현상 분석

김형엽
(고려대학교)

Kim, Hyoung-youb. 1998. The analysis of the reduplication of Korean: based on Harmonic Theory. *Studies in Phintics, Phonology and Morphology* 4, 125-153.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artial reduplication of Korean. The theoretic methodology that will be applied to account for the phenomenon is Harmonic Theory. A lot of studies have been attempted to explain it, but neither of them seems to be quite successful in their analyses and explanations. However, according to Harmonic Theory this phenomenon can be accounted for without producing any problems. Based on the model which will be shown in the part of the introduction of the theory the problematic example such as 'tek-tekul' cannot remain as an exception any more. The analysis illustrated in this paper and performed by following the indication of the theory will show that Harmonic Theory is the most appropriate methodology for the partial reduplication. (Korea University: Seochang)

Keywords: analysis, partial, reduplication, Harmonic Theory, Optimality Theory

1. 머리말

이 논문은 지금까지 알려져 온 한국어의 중첩 현상(reduplication)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논문의 요지는 지금까지 중첩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적용되었던 전통적 음운이론(1980년대까지)이나 최근 수용된 최적이론(optimality theory)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조화이론(harmonic theory)으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어의 중첩현상은 이미 Y-S Kim(1985)에서 다루어진 바가 있으며, 이 논문에 따르면 한국어에서 중첩현상은 완전중첩(total reduplication)과 부분중첩(partial reduplication) 두 종류이다. (1a)는 완전중첩의 예들이고, (1b)는 부분중첩의 예들이다. 여기에 표기된 '-'는 형태적인 분기점을 가리키며, '.'는 음절 분기점을 표시하는 것이다.

- | | | | |
|----------------|--------|---------------|--------|
| (1) a. pəl-pəl | '벌벌' | sil-sil | '슬슬' |
| t'opak-t'opak | '또박또박' | hantil-hantil | '한들한들' |

komcilak-komcilak ‘꼼지락꼼지락’

b i. 한음절 단어의 중첩

pə-pəl ‘버벌’ p^ha-p^hak ‘파팍’ k’wa-k’wang ‘파꽝’

ii. 두음절 단어의 중첩

tu-tung·sil‘두둥실’sa-sal·c’ak‘사살작’

pa-sa-sak‘파사삭’ho-lo-lok‘호로록’

t’a-li-ling‘따르릉’al-lo-lok‘알로록’

tek-te-kul‘텍데굴’kol-ko-lu‘골고루’

t’əl-t’ə-lim‘털떠름’pəs-pə-sis‘벗머쓱’

본 논문에서 주제로 삼고자 하는 것은 (1b)의 예들인데, 그 이유는 기존 이론에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바로 부분중첩이기 때문이다. (1b)를 자세히 살펴 보면, 한국어의 부분중첩은 두 가지 특징들이 있다. 첫째는 중첩 현상의 방향이다. 주어진 예에 따르면 중첩부분은 모든 경우에 어간의 왼쪽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로 중첩부분과 어간의 음절구조이다. 대부분의 예에서 중첩부분은 CV와 같은 음절구조를 보여주고 있으며, 중첩의 어간이 되는 부분은 CVC의 음절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b)의 넷째, 셋째 줄에 해당하는 ‘tek-te·kul’은 부분중첩의 특징을 일관성 있게 설명하는데 적지 않은 문제점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예의 주된 문제는 다른 예들과 달리 중첩부분이 어간의 음절구조를 정확하게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중첩부분의 음절말 자음인 ‘k’는 중첩현상의 어간이 되는 음절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다음 음절의 초두에 있는 자음인데도 중첩부분의 음절말에 나타난 것이다. 이 예를 전통적인 생성음운이론으로 설명하려면 많은 예외적인 가정이 따라야 할 뿐만 아니라, 최근의 이론인 최소이론에서조차도 예외를 인정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그다지 만족스럽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위에서 제기된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전통적인 생성음운론이 어떤 방식으로 부분중첩을 설명하였는지를 보고, 위에서 제기한 예가 이 이론에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는지를 보도록 하겠다. 3장에서는 최적이론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 이론과 주어진 예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살펴 보도록 하겠다. 4장은 본 논문의 요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 조화이론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 이론이 위의 예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를 보이겠다. 5장은 본 논문의 맺음글로서 ‘tek-te·kul’의 설명을 근거로 조화이론이 한국어의 중첩 현상을

설명하는데 더 적절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2. 생성음운형태론

2.1 접어화현상으로서의 중첩

한국어의 중첩 현상을 초기 생성이론으로 설명한 것은 Y-S Kim(1985)에 잘 나와 있다. 이 분석의 요지는 부분중첩 현상을 별도의 언어 현상으로 보지 않고 형태적인 변화 현상의 하나로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즉 중첩 부분이 나타나는 예를 파생·굴절과 동일한 것으로서 분류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단어에서 중첩부분을 볼 수 있는 현상은 형태론에서 접미사가 어두·어미에 나타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즉 중첩 현상은 접사 연결(affixation)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2)의 예는 중첩 현상을 접사 연결의 방법으로 분석한 것을 보인 것이다. 이 방법은 Marantz(1982)에서 이미 제시된 것으로서 중첩부분의 모양 결정은 단어 형성의 핵심층이라고 할 수 있는 CV 계층의 구조를 근거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중첩부분이 어간의 왼쪽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중첩부분의 모양으로 설정된 CV 구조와 해당 단어의 분절음을 제일 왼편으로부터 핵심층에 있는 CV와 하나씩 연결함으로써 중첩부분의 구조를 결정짓는 것이다. 단어를 형성하는 분절음들 중에서 CV와 연결되지 못한 것은 최종 음성표기 이전에 삭제해버린다. 이런 방식은 한국어에서 중첩 현상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음성표기로서 음절구조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적지 많이 발견된다. 즉 '값'과 같은 단어는 형태적으로는 이중 받침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음성적으로는 최종 자음인 'ㅅ'이 발음되지 않는다. 이것을 설명하는 방법으로서 한국어의 음성적 음절구조를 'CVC'로 국한시킨다면 어말에 자음이 하나만 허용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값'의 'ㅅ'을 음절구조 내부의 어느 요소와도 연결 지을 수 없는 것으로서 규정하고 이것을 삭제시키면 음성적으로 허용된 발음을 얻을 수 있다. 음운론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을 표류요소삭제(stray erasure)라고 한다. (2)에서도 중첩부분에 위치한 분절음들 중에서 연결할 C 또는 V가 없는 경우에는 표류요소삭제를 적용하여 중첩부분을 형성할 최종 음성표기를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p^hak'에서 어말 자음인 'k'는 표류요소삭제에 의하여 사라지고 중첩부분이 접두어로 표기된 최종 음성표기는 'p^ha-p^hak'와 같이 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최소한 한국어의 중첩을 설명하는데는 적지 않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이들 문제점들을 두 방향으로 짚어보기로 하겠다. 첫째로 중첩부분에 표기될 CV 구조에 있어서의 일관성의 부재이다. (1bii)의 네 번째, 다섯 번째에 나오는 예들을 보면 중첩부분이 (2)에서 본 바와 달리 CVC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예들의 중첩 현상들을 단순히 접두사가 붙는 것만으로 본다면 접두어의 종류에 따라서 CV, CVC와 같은 다양한 접두사가 온 것으로서 생각할 수 있지만, 기존의 접두사들과 중첩부분이 접두사처럼 나온 예들은 중요한 차이가 있다. 즉 접두사는 본래 홀로 분포성을 보이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중첩부분과 동일하게 여겨질 수는 있지만, 의미적으로 볼 때 기존의 접두사들이 독자적인 의미를 소유하고 있는 반면에 중첩부분은 완전하게 독립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형태적 접두사는 사전에 표기되지만, 중첩부분에 나타나는 형태는 사전에 별도로 표기되지 않는다. 또한 중첩부분의 설정은 어간을 형성하고 있는 분절음의 종류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기존의 형태적 접두사들은 어간의 음성적인 구조보다는 접두사가 첨가된 후의 전체 의미에 주로 비중을 두고 있다. 게다가 CVC 구조를 중첩부분에 가지고 있는 예들과 CV 구조를 가지고 있는 예들 사이에는 중첩이라는 동일한 현상이 있을 뿐 의미에 있어서는 전혀 차이가 없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살펴 보면 중첩부분이 CV, CVC와 같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서도 찾기가 어렵다.

둘째는 (1bii)의 두 번째, 세 번째에 나오는 예에서 중첩부분이 어두에 오는 것이 아니라 단어 전체 구조에서 단어 내부에 나타나는 경우들이다. Y-S Kim(1985)는 이 예들을 접요사 (infix)가 적용된 것으로서 분류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석은 한국어 형태론 분석에 이론적인 부담을 안겨주게 된다. 한국어에서 접요사는 합성어의 '사이시옷'과 같은 특수한 상황 말고는 그리 흔한 현상이 아니다. 그렇지만 중첩부분을 접요사로 분류하게 되면 접요사의 예가 상당히 많아지게 될 뿐만 아니라 접요사의 예들이 중첩 현상에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기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최근 최적 이론에서도(McCarthy and Prince: 1993, 1994) Tagalog와 같은 예를 들어 접요사처럼 나타나는 중첩을 접두사와 접미사의 일부로 재분류함으로써 접

요사가 중첩 현상에만 집중화되는 현상을 막았다.

2.2 복시 과정으로서의 중첩 현상

여기서의 주된 요지는 Steriade(1988)과 Yip(1992)의 근거하고 있다. Steriade는 위에서 다룬 방법과 달리 중첩을 해당 단어의 전체를 복사하고 (copy) 최종적 표기를 도출하기 위하여 별도의 규칙을 설정하였다. (1)에 주어진 부분중첩 예들은 (3)처럼 분석될 수 있다. 한국어에서는 일단 중첩의 대상이 된 단어는 중첩부분이 단어 전반부에 나타나는 관계로 중첩 현상을 단어 앞에 복사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최종 표기를 도출하는 것이다. 반복된 부분에서 최종적으로 남는 부분은 설명하는 근거로 한국어의 중첩부분의 기본구조(template)를 '[CV]₀'로 하면 설명이 가능하다.

(3) 기본형	p ^h ak	tung·sil
복사	p ^h ak-phak	tung·sil-tung·sil
기본구조	[[pha] ₀ k]-p ^h ak	[[tu] ₀ ng] sil-tung·sil
삭제	p ^h a-p ^h ak	tu-tung·sil
최종형	p ^h ap ^h ak	tutungsil

이 분석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로 (Ibii)에서 마지막 두 줄에 나온 예들은 위 방법을 적용하는데 별도의 기본구조로서 '[CVC]₀'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 기본구조가 '[CV]₀'와 다른 점은 이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CV와 디칭 되는 분절음에 있다. (3)에서는 기본구조의 CV가 왼쪽부터 차례로 분절음과 대응하고 있고 각 분절음은 동일한 음절에 속하고 있지만 '[CVC]₀'의 마지막 'C'는 다음 음절 초두음(onset)과 일치하고 있다. 이 방법을 적용하면 'tungsil'의 경우 (4)처럼 분석할 수 있다. 즉 'tungsil'에서 두 번째 음절의 's'가 중첩부분에 포함되기 위하여 'ng, s' 중 'ng'를 삭제하는 규칙을 설정하여야 한다. 물론 한국어에는 음성적으로 음절말에 두 개의 자음을 허용할 수 없다는 기본 음절구조 원칙이 있지만, 'kaps-i ⇒ kap·si'에서처럼 사라진 자음이 다음 음절에서 초두음으로 재배치되는 경우에는 이 자음이 음성적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ng, s'를 단순히 자음접침에 근거하여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 이 방법대로 규칙들을 적용하면 (4)처럼 옳지 못한 결과에 직면하게 된다.

(4) 기본형	tung·sil
복사	tung·sil-tung·sil
음절재구성	tungs·il-tung·sil
음절말접자음	tus·il-tung·sil
기본구조	[tus] ₀ il-tung·sil
최종형	*tustungsil

그러나 Steriade(1988)에서는 위에서 보여준 '[CVC]₀' 기본구조 분석 방식을 이용하여 (1bii)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줄에 있는 경우와 비슷한 Mokilese의 중첩 현상을 설명하였다. 이 분석의 요점은 Mokilese의 중첩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음절구조재구성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¹⁾ (5)는 Steriade가 Mokilese의 예를 분석하는 방법을 예로서 보인 것이다. 'pɔdɔk'에서 첫음절인 'pɔ'가 다음 음절의 초두음인 'd'를 받아들여 'pɔd'로서 음절구조를 다시 구성하였다. 이 분석은 'pɔdɔk'이 'pɔd-pɔdɔk'로 중첩 현상을 일으키는데 아주 적절한 설명일 될 수 있다.

(5) 기본형	pɔ·dɔk
복사	pɔ·dɔk-pɔ·dɔk
음절재구성	pɔd·ɔk-pɔ·dɔk
기본구조	[pɔd] ₀ ɔk-pɔ·dɔk
최종형	pɔdpɔdɔk

그러나 위에 제시된 분석에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 '[CVC]₀'가 중첩 부분의 기본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확실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즉 Steriade(1988)에 예시된 Mokilese는 중첩부분의 음절이 반드시 둘 이상의 모라(mora)를 유지해야 하는 규칙이 있다. 이와 같은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중첩부분의 음절이 최소한 CVC처럼 닫힌 구조를 이루어야 한다. 그래야만 두 개의 모라를 연결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 만일 기본형이

¹ Steriade (1988: 141)

기본형	중첩형	
pɔdɔk	pɔd-pɔdɔk	'plant'
	pɔɔ-pɔdɔk	
kooɔɔ	koo-kooɔɔ	'grind coconut'
wi·a	wii-wi·a	'do'
di·ar	dii-di·ar	'find'

자음으로 끝나지 않을 때는 중첩부분에 나타나는 모음을 장모음으로 전환하여 두 개의 모라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각주 1 참조)

(5)의 예를 살펴 볼 때, 한국어에서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는 데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한국어에서 'tek-te-kul'을 설명하기 위하여 중첩부분의 기본구조를 [CVC]₀로 설정하는 것은 어디에도 적절한 근거를 찾기란 쉽지 않다. 또한 한국어처럼 CV, CVC가 중첩부분에 번갈아 나타나는 경우 CVC만을 위한 근거를 찾는다는 것은 그리 의미 있는 일이 아니다.

둘째도 (6)에서처럼 복사를 주축으로 하여 중첩을 분석하는 방식은 (1bii)의 둘째, 셋째 줄에 있는 예를 설명하는데도 문제가 있다. 우선 'tungsil'의 경우에는 중첩이 단어 앞에 위치해 있지만, 'pa-sa-sak'에서는 중첩부분이 단어 내부에 위치해 있어서 기본형을 복사한 후에 나름대로 설정한 규칙을 적용하고 남은 부분을 단어 내부에 재배치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Steriade(1988: 81-82)에서는 기본구조를 설정하고, 이 구조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변두리 요소로서 삭제하는 것을 언어에서는 상당히 보편적인 현상으로 간주하였다. 이와 같은 사항은 (4), (5)에서 CV, CVC를 정하고 왼쪽부터 대응하는 분절음을 남기고 나머지를 지우는 과정을 잘 설명해줄 수는 있지만, 복사된 부분의 중간에 위치한 분절음을 대응시키고 나머지를 지우는 것을 설명하기에는 별로 적절하지 않다. 아마 Steriade는 (6)의 방법을 옹호하기 위하여 중첩부분의 핵심층 구조인 CV, CVC와 대응하는 분절음들이 기본형에서 [CVC]₀의 음절구조를 형성하고 있을 때만으로 국한하여 설명하려 할 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tekul'에서 첨 음절인 'te'는 [CVC]₀의 음절구조가 아니다. 그러나 'al-lo-lok'은 기본형의 첫 음절이 바로 앞에서 제시한 음절말음(coda)이 있는 구조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중첩부분이 단어 내부에 있는 것을 볼 때, 기본형의 음절구조에 의존하여 대응하는 분절음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Steriade의 방법을 적용하여 부분중첩이 단어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을 설명하려면 해당 중첩부분을 어간 내부로 이동시켜야 하는 문제가 일어난다. 만일 중첩부분의 이동을 원하지 않는다면 달리 중첩 현상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이런 방법의 문제는 (4)의 경우와 달리 '위치이동'과 같은 규칙을 설정하게 하는데 이것은 이론적으로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부분이다.

(6)²⁾ 기본형 pa·sak

²⁾ 이 분석에서 음절재배치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음절재배치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는 서로 기본구조에 해당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

회사	pa·sak-pa·sak
기본구조	pa [sa] k-pa·sak
위치이동	pa k-pa·[sa]·sak
최종형	pa·sa·sak

2.3 운율 구조형태로서의 중첩

이 방법의 특징은 기본 운율구조(prosodic structure)에 의거하여 중첩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다. McCarthy and Prince(1990)에 따르면 중첩에 해당하는 부분을 별도의 단위로서 설정하여 중첩 현상을 설명하였다. (1b)의 예들은 다음과 같이 분석될 수 있다. (7)에서 'Σ'는 어간의 일부분이 접두사처럼 첨가되는 것을 가리키는 '작용기호'이며 '*'는 이 표기 양쪽에 있을 두 단위가 서로 합쳐지는 과정을 가리키는 표기이다.

- (7) a. Σ-(phak) = Σ-(p^hak)
 = p^ha-p^hak
- b. Σ-(tungsil) = Σ-(tungsil)
 = tu-tungsil
- c. Σ-: Φ(pasak) = Σ-(pasak:Φ) * pasak/Φ
 = Σ-(sak) * pa
 = sasak * pa
 = pasasak

그러나 위의 분석은 (1bii)의 마지막 두 줄의 예에 가서는 두 가지 문제가 발견된다. 첫째는 'tek-tekul'은 중첩부분을 (7)에서처럼 기존의 예들을 설명하듯이 접두사로서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없다. (7)에서 'Σ'는 중첩 현상이 접두사처럼 발생하는 것을 설명하는 작용기호(operation)를 가리키는 것인데, 'tek-te-kul'에서는 중첩으로 보이는 '-te-'가 (1b)의 다른 예들과 달리 '-te-'가 'tek'의 중첩부분으로서 마치 접미사처럼 'tek'에 첨가되어 나머지 부분들과 함께 하나의 단어를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분석은 한국어의 중첩 현상을 논리적 일관성을 근간으로 설명하는데 적지 않은

다. 즉 (5)의 예들처럼 음절재배치가 필요한 예는 기본구조가 단어 제일 앞에서부터 CV와 해당 분절음이 서로 대응하지만, (6)처럼 음절재배치가 없는 예는 대응하는 분절음이 단어 내부에서 시작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문제점을 불러 일으킨다. 즉 (1b)의 부분중첩을 설명하기 위하여 두 종류의 작용기호를 설정하거나, 한 작용기호에 두 가지의 기능을 부여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이것은 McCarthy and Prince(1990)의 방법으로는 (1biii)의 끝 두 줄에 나온 예들을 별도로 설명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됨을 보여 주는 것이다.

둘째로 (7)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tek-tekul'도 접두사가 첨가된 것처럼 설명하려면 'Σ'의 기능을 CV만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CVC도 복사하게끔 해야 하는데 이 또한 일관성을 잃기는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McCarthy and Prince(1990:264)도 'CVX'의 세 자리를 반복하는 부분중첩의 예를 설명하려 하였는데, 이 방법이 잘 적용되는 예로서 Mokilese의 부분중첩 예들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McCarthy and Prince가 Mokilese에서 'CVX'를 부분중첩의 구조로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Steriade가 (5)와 같이 분석하였듯이 중첩부분에서 일정한 수의 모라(mora)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Mokilese에서는 부분중첩 부분이 반드시 두 개의 모라를 소지하고 있는 음절구조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분중첩의 공간이 되는 어간의 음절이 단음으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중첩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장음으로 표기되어 두 개의 모라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간에서 중첩이 목표가 되는 부분이 처음으로 마감된 음절이라면 이 음절말 자음으로 하여금 별도의 모라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첩부분인 'CVX'의 음절말음을 'C'나 'V'가 아닌 'X'로 놓음으로써 'C, V' 양쪽 모두가 모라에 대하여 동등한 위치를 취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한국어의 경우에는 Mokilese와 달리 어떤 이유로도 중첩부분을 'CVX'로 설정할 수 없다. 단지 관찰의 결과로만 중첩부분의 구조가 CV 또는 CVC가 될 수 있음을 보임으로써 논리의 약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따라서 (1biii)의 마지막 두 줄에 나온 예들만을 설명하기 위하여 특정 근거도 마련하지 못한 채 중첩부분의 구조를 'CVC'나 'CVX'처럼 세 자리로 설정하려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매우 희박하다.

3. 최적이론과 중첩

3.1 이론적 배경

음운·형태이론에서 최신의 이론을 들라면 최적이론(optimality theory)을 빼 놓을 수 없다. 이 이론이 2에서 보인 기존의 음운론 관련 이론들과

다른 점은 규칙의 적용 차례를 바탕으로 한 도출 과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SPE(Sound Pattern of English)를 시초로 기저형과 표층형을 별도로 설정하고 이 두 계층들을 중간 계층의 표기들로 연결하는 이론적 기본틀은 최적이론에서는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었다. 즉 기저형·표층형 및 중간에 나올 수 있는 모든 표기를 대등한 위치에 설정하고, 각 표기들을 제약(constraint)으로 일컫는 새로운 기준에 근거하여 비교함으로써 주어진 환경에서 가장 적절한 형태를 선택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최적이론은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음운이론보다 더 나은 설명력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첫째는 계층 설정의 애매성을 해결한다는 것이다. 기저형과 표층형이 전제가 된 음운이론에서 문제의 핵심은 이들을 연결하는데 표기되는 중간계층 형태들이다. 이미 McCarthy and Prince(1993), Prince and Smolensky(1993), Goldsmith(1993)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중간계층에 나타나는 표기들이 실제의 언어 행위에 반영될 수 있는 지는 여러 연구들에 의하여 다루어진 바 있으며, 이들 연구들은 이구동성으로 중간계층의 표기들이 기저형과 표층형의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일 뿐 실제 언어 행위와 관련하여 더 이상의 의의가 없음을 주장하였다. 최적이론에서는 이처럼 이론의 부담이 될 수 있는 중간형태들을 더 이상 존재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기존의 음운이론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다. 둘째는 음운규칙들의 적용 순서이다. 기저형과 표층형이 상호 연결되어야 할 이론 모델에서 적절한 표층형을 기저형으로부터 도출하는 방법은 관련된 음운규칙들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순서를 정해줌으로써 원하는 음성적 표기인 표층형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규칙들의 적용으로 생기는 문제는 규칙이 한 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적용되어야 하는 규칙의 근본적 성향이다. 즉 하나의 규칙 적용은 그 결과로 중간형태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으며 이와 같은 중간형태의 종류는 규칙의 수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규칙이 적용되면 될수록 더 많은 종류의 중간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이미 위에서 지적했듯이 중간형태는 기존 음운이론의 주요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처럼 적지 않은 수의 중간형태를 규칙들이 만들어야만 한다면 이것은 규칙 설정 및 순서 결정에 결정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밖에 달리 볼 방법이 없다고 하겠다. 또한 규칙 순서가 정해지는 과정은 논리적으로도 순환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정 숫자의 규칙들이 일정한 적용 순서를 갖는 것은 기저형과 표층형의 모양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기저형과 표층형의 모양이 규칙 적용

순서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적이론에서는 이들 규칙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규칙의 적용 순서 결정 및 논리적 순환성을 해결하였다. 다음으로는 최적이론이 갖고 있는 이론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최적이론에서 우선적으로 특기할 사항은 기저형·표층형 및 중간형태를 모두 음성적으로 가능한 형태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이론들이 안고 있던 문제점들을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즉 기저형 및 중간형태에 있었던 표기형을 음성적 표기로서 동일하게 놓음으로써 기저형과 중간형태들이 인간의 뇌 속에서 언어능력이 수행되는 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의심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런 논지는 이미 Goldsmith(1993)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진 바 있다. Goldsmith는 그의 논문에서 중간형태가 언어 수행 과정에 있기 어렵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기저형과 표층형의 중간에 나타날 수 있는 형태들의 설정 자체를 부인하였다. 그 이유는 중간형태는 단지 그때그때 적용되는 규칙의 결과일 뿐 실제 언어 행위의 어느 곳에서도 발견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중간형태들이 실제의 언어 행위에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형태라면 이들은 이론의 부산물일 뿐 이론적으로 어떤 의미도 부여받기 어렵다.

최적이론에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특기할 사항은 제약의 설정이다. 기존의 이론들이 사용하였던 규칙을 사용하지 않고 적절한 음성형태를 결정하는데 이들 제약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들 제약이 소지하고 있는 특징은 제약을 각자가 주어진 표기들에 대한 판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특정 제약의 판정에 따라 하나의 표기가 옳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그 표기는 해당 제약에 대해서는 적절한 표기로 선정되는 자격이 박탈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러나 동일한 제약에 대하여 다른 표기가 옳은 것으로서 판정되면 해당 제약에 한정되어 최종 표기로서 선택될 수 있는 자격을 소유하게 된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약이 여럿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여러 개의 제약이 필요할 경우에 하나의 표기가 각각의 제약에 따라서 다른 판정 결과를 보일 수 있다. 즉 어느 한 제약에 대하여는 해당 표기가 옳은 것이 되어 선택될 수 있지만 다른 제약에서는 옳지 않은 것으로서 판정되어 선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해당 표기를 최종형으로서 선택해야 하는 지에 대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적이론의 제약 적용 방법에 도입된 개념이 바로 제약들의 위상(hierarchy)이다. 예를 들어 두 개의 표기가 있는 경우 각각의 표기가 주어진 모든 개의 제약들 중에서 각각 하나씩만을 어길 때 어느 표기를 선택

하느냐에 따라서 두 제약 사이에 위상이 결정되는데 일단 한 표기가 적절한 것으로서 선정되게 되면 제약들 사이의 위상이 주어진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일단 위상이 결정되면 상위 제약으로 결정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어기지 않는 것이 좋다. 어떤 표기는 가장 높은 위상을 가진 제약을 일단 어기면 아무리 다른 제약을 만족시킨다고 하여도 옳은 형태로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최적이론에서는 제약들의 상하를 도표 내의 위치로 표시하는데 도표의 왼편에 오는 제약이 다른 제약들 보다 위상에서 상위 개념을 가지게 된다.³⁾

3.2 상응최적이론

지금까지는 McCarthy and Prince(1993), Prince and Smolensky(1993)을 기초로 한 최적이론의 이론적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이제부터는 최적이론이 한발 더 앞서서 발전된 상응최적이론(correspondence theory)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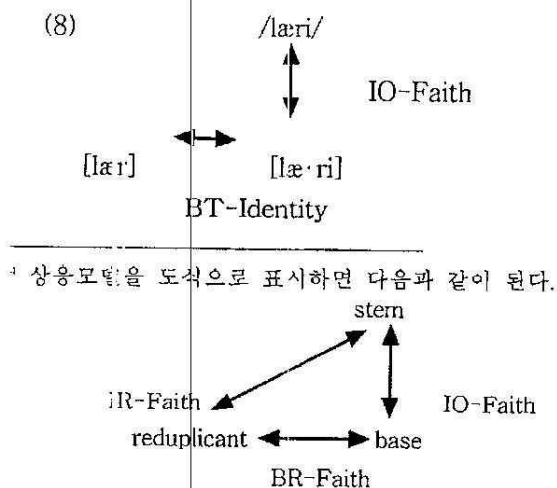
상응최적이론은 McCarthy and Prince(1995)의 논문에서 제시된 이론으로서 최적이론으로 하여금 좀 더 구체적인 예를 설명할 수 있도록 발전된 것이다. 특히 이 이론이 제시하는 상응모델은 본 논문에서 다루려고 하는 중첩 현상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Beuna(1995)는 이 모델의 적용 범위가 중첩 현상 뿐만 아니라 절단 현상(truncation)과 같은 여러 형태적 현상까지 포함할 수 있음을 잘 보여 주었다. 이제부터는 상응최적이론의 특징을 살펴 보고자 하는데, 이 이론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첫째는 상응관계를 보여주는 단계를 셋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각 단계는 원형인 어간(stem), 어간에 어느 정도의 형태·음운적 현상에 반영된 어기(base), 중첩 현상이 반영된 부분인 중첩부위(reduplicant)로 구성되어 있다. 각 단계들의 관련성은 어간과 어기는 'IO-Faith'라고 하고, 어기와 중첩부위는 'BI'-Faith'라 하며, 중첩부위와 어간은 'IR-Faith'라 명명한다. 여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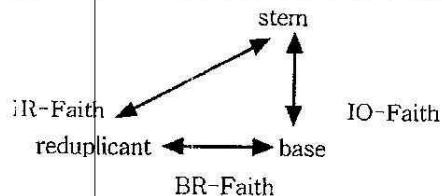
³⁾ 다음 도표에서 제약 j, m은 철자의 순서와 상관 없이 주어진 명칭이다. '⇒'는 적절한 표기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제약을 어기는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을 알 수 있다. 'aBc'는 하위 제약 m을 어겨도 선택될 수 있지만 'abC'는 상위 제약인 j를 어겼기 때문에 아무리 m을 만족시켜도 선택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εbc/	제약 j	제약 m
⇒ εBc		*
εbC	*	

'Faith'는 'faithfulness'의 준말로써 단계 상호간의 일치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들 명칭을 잘 살펴 보면 상용모델의 본래 의도는 각 단계 사이의 일치도가 가능한 충실히 지켜졌으면 하는데 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⁴⁾ 어간과 어기의 차이는 음운·형태적 변화의 유무와 관련성이 있다. 설명의 대상이 되는 언어 단위가 중첩 현상의 적용 대상이 될 때 이 언어 단위가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채 중첩 현상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어느 정도의 변형이 첨가된 후 중첩이 발생하는 경우에 따라 어간과 어기에 나오는 언어 단위가 형태적으로 차이가 있는 지 없는 지가 결정된다. Beuna(1995)에서 중첩 현상 대신 영어의 절단 현상의 예에 상용모델을 적용하였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r'이 마지막 분절음인 단어에서는 바로 앞의 '/a/' 모음이 '[ɑ]'로 발음되지만, 'r'이 마지막 자음이 아니거나 'r'이 다른 음절에 속하면 그 앞의 모음 '/a/'는 '[æ]'로 발음된다.⁵⁾ 이런 예를 상용이론으로 설명하게 되면 (8)과 같이 표기될 수 있다. 이 예에서 어간과 어기는 음운 현상인 음절구조 설정의 유무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어간에는 '·'와 같은 음절경계 표시가 없지만 여기에는 이 표시가 'r' 앞에 표시되어 있다. 바로 이 음절경계가 '/a/'가 '[æ]'로 발음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준다. '[læɹ]'는 절단형(truncated form)으로서 이것과 어기의 관계는 상용모델의 중첩부위와 어기와 관계와 유사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⁴⁾ 상용모델을 도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⁵⁾ Beuna(1995:77): 영어에서의 $[æ] \approx [ɑ]$ 변이 현상을 보여 주는 예

a. map	[mæp]	b. mar	[mar]
carry	[kæri]	car	[kɑr]
Harry	[hæri]	hard	[hɑrd]
Larry	[læri]	lark	[lɑrk]

둘째는 상응모델 각 단계들의 관계를 결정해주는 제약들이다. 상응모델에서 주로 사용되는 제약은 MAX, DEP, IDENT들이다.⁶⁾ MAX는 두 표기 사이의 구성소들이 서로 완전하게 일치해야 함을 제약하는 조건이다. 위에 예에서 /læri/와 [læ·ri]는 MAX를 만족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어간의 구성소인 'l, æ, r, i'는 어기의 구성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즉 어간의 모든 구성소는 어기에서 완전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두 표기는 상호간에 MAX에 대하여 만족시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DEP는 구성소의 일치관계를 여기로부터 어간으로 비교하여 본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여기에 있는 'l, æ, r, i'는 어간에서 모두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와 어간은 DEP에 관하여 서로 만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여기에 있는 음절경계 표시는 분절음과 동등하게 보지 않으므로 두 관계에서 그리 중요하지 관련시킬 필요가 없다. IDENT는 분절음 전체의 일치관계보다 분절음에 포함된 자질을 비교하는 것으로서 비록 두 표기 사이에 분절음이 최종적인 음성 표기는 달라도 특정 자질에 대해서는 서로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3.3 상응모델과 중첩 현상

지금까지 최적이론 및 최적이론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상응모델에 대해

⁶⁾ McCarthy and Prince(1995:16)에는 각 제약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MAX: 어간과 어기 등과 같이 상응모델의 각 단계에서 연결체 (string: S로 함)로 표시되는 분절음 표기는 상응소 (correspondent)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각 연결체의 상응관계는 어간을 시작으로 하여 나머지로 관련성을 맺어 가야 한다. 따라서 어간의 연결체라고 할 수 있는 S1의 모든 구성소들은 어기의 연결체인 S2 내부에 상응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DEP: 어간과 어기 등과 같이 상응모델의 각 단계에서 연결체로 표시되는 분절음 표기는 서로 상응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연결체의 상응관계는 중첩부위를 시작으로 하여 나머지로 관련성을 맺어 가야 한다. 따라서 어기의 연결체라고 할 수 있는 S2의 모든 구성소들은 어간의 연결체인 S1 내부에 상응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IDENT: 어간과 어기 등과 같이 상응모델의 각 단계에서 연결체로 표시되는 분절음 표기는 서로 자질에 있어 상응할 수 있는 관계에 있어야 하며, 그 관련성을 어간을 시작으로 하여 나머지로 맺어 가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S1의 한 분절음에 특정 자질이 일치관계의 목표가 될 때 S1의 분절음에 상응하는 S2의 구성소에서도 동일한 자질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위의 정의에서 유추하여 알 수 있는 것은 MAX가 기존 분절음의 삭제제를 제한하는 반면 DEP는 새로운 분절음을 별도로 삽입하는 것을 피하려는 것으로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여 살펴 보았다. 본 장에서는 위에서 다룬 상응모델을 이용하여 한국어의 중첩 현상을 분석하고자 하며, 이 이론이 한국어의 중첩 현상을 어느 정도 설명해줄 수는 있지만, 다른 앞선 이론들이 모두 그랬듯이 이 이론도 역시 적지 않은 문제점일 있음을 아울러 보이고자 한다.

먼저 상응모델을 적용할 예는 중첩부위가 단어의 앞에 위치한 예들인데, 이에 관련된 다른 예들은 (1bi)와 (1bii)의 첫 줄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이 예들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 중첩부분이 단어의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첩부분에 나타나는 부분은 어간의 첫 음절의 CV만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응모델에 의거하여 이들 단어들을 설명하는 방법의 주요 요점은 세 종류의 제약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들 제약은 각각 NoCoda, MAX_{BR}, DEP_{BR}이다. 우선 NoCoda는 음절표기의 기준을 제약하는 것으로서 음절표기는 되도록 음절말음(coda)를 갖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이것을 한국어에 적용시키면 받침을 피하라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다. 이 제약의 목적은 중첩부분에 음절말음이 나타나지 않으려는 경향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MAX_{BR}은 어기와 중첩부위 사이의 관계를 제약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르면 어기에 나오는 모든 분절음들은 중첩부분에 상응하는 구성소를 가지고 있어야 함을 정의하는 것이다. DEP_{BR}도 바로 앞서 언급된 제약처럼 어기와 중첩부위의 관계를 제약하는 것이지만 상응의 관계는 중첩부분의 구성소들이 어기에서 자신의 상응소를 찾는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이 제약들을 적용하여 해당 예를 설명한 것이 (9)에 잘 나와 있다. (9a)와 (9b)의 차이는 NoCoda가 도표에서 어느 위치에 오느냐에 달려 있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최적이론에서는 제약이 하나 이상 적용될 때는 각 제약 사이에 위상을 설정하여 여러 표기들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른다. 제약이 위상이 높고 낮음은 도표에서 얼마나 원편에 위치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어느 제약이던 가장 원편에 위치한 것은 제약들 중 위상이 가장 높은 것으로서 특정 표기가 이것을 어기게 되면 아무리 다른 제약을 만족시킨다 하더라도 적절한 형태로서 받아들여지기가 어렵다. 따라서 (9b)에서 최적형으로 선택된 형태가 (1bii)에 있는 실제의 형태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9a)처럼 제약들의 위상이 결정되어야 한국어에서 실제로 관찰될 수 있는 중첩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음을 알 수 알 수 있다. 제약들의 상하는 NoCoda ≫ MAX_{BR}, DEP_{BR}과 같이 도식으로 표기될 수 있다.⁷⁾

⁷⁾ 주어진 예로는 MAX_{BR}과 DEP_{BR}의 위상을 결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양 도표에서 최적형은 두 제약의 순서와 상관 없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제약들 사이의

(9) a.

{Red}	tung·sil	NoCoda	MAX _{BR}	DEP _{BR}
t	tung·sil	**	**!	
⇒ tu	tung·sil	**	*	
tung	tung·sil	***!		
tuC	tung·sil	***!		*

b.

{Red}	tung·sil	MAX _{BR}	DEP _{BR}	NoCoda
t	tung·sil	**!		**
tu	tung·sil	*!		**
⇒ tung	tung·sil			***
tuC	tung·sil		*!	***

다음으로는 부분중첩에서 중첩부분이 단어 중간에 오는 (1bii)의 둘째, 셋째 줄에 오는 예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들 예를 설명하는데 필요한 것은 부분중첩이라는 것을 제약으로서 확실하게 인식시키는 것이다. 이미 (9)에서 보았듯이 중첩의 대상이 되는 어간의 첫 음절을 완전히 반복하게 되면 중첩의 예로서 그리 바람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밖에 없다. 만일 (1bii)에 나오는 'pasak'에 'papasak'과 같은 중첩 현상을 적용하고 'pasasak'과 비교하면 대부분의 모국어 화자는 전자보다는 후자를 택할 것이다. 또한 실제적으로도 전자보다는 후자의 경우가 더 많은 예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처럼 한국어가 부분중첩 충실하려는 현상은 PartRed라는 제약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근거를 제시해준다. 여기서 제안된 제약은 중첩이 음절 전체를 반복하기보다는 부분중첩의 취지에 맞게 부분적으로 중첩을 수행하려는 강한 경향을 반영하고자 설정한 것이다. 이 제약을 위에 나온 제약들과 함께 적용하면 (10)과 같이 된다. 이 도표의 특징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10a,b)에서 보듯이 PartRed와 NoCoda 사이에는 위상이 따로 성립될 필요가 없다. 두 제약의 위상을 바꾸어도 동일한 결과를 얻어내기 때문이다. 이들 제약들 사이의 위상을 도식으로 표시하면 PartRed, NoCoda \gg MAX_{BR}, DEP_{BR}처럼 된다. 둘째로 생각해 볼 부분은 MAX_{BR}에 대한 재평가이다. 한국어 중첩에서는 MAX_{BR}이 어기와 중첩부분과의 상용도를 측정하기도 하지만, 비록 상용하는 구성소가 서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중첩

위상은 정해지지 않는 것으로서 동등하게 취급되며, 도표에서는 이들 제약들 사이를 점선으로서 표시하고 도식에서는 '·'를 제약들 사이에 표시하여 그들의 관계를 확인시켜 준다.

부분의 상용 구성소들이 홀로 서는데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 또한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p-pasak'이 'pa-sa-sak'과 제약을 어기는 면에서는 동일하게 보이지만, 한국어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전자처럼 자음이 하나의 독립 요소로서 홀로 분포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이 주어진다면 후자를 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MAX_{BR} 제약을 둘 다 어기지만 전자를 좀 더 문제가 많음을 보이기 위하여 최적이론에서 최악의 경우를 표시하는 '!'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한국어의 자연스러운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국어 화자가 사용하기에 알맞은 형태를 고르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10) a.

{Red}-pasak	PartRed	NoCoda	MAX _{BR}	DET _{BR}
p - pasak		*	*!	
pa - pasak	*!	*		
paC - pasak	*!	**	**	
pa-s -sak		*	**!	
⇒pa-sa -sak		*	*	
pa-saC-sak	*!	**		*

b.

{Red}-pasak	NoCoda	PartRed	MAX _{BR}	DET _{BR}
p - pasak	*		*!	
pa - pasak	*	*!		
paC - pasak	**!	*	**	
pa-s -sak	*		**!	
⇒pa-sa -sak	*		*	
pa-saC-sak	**!	**		*

끝으로 상용모델을 (1bii)의 넷째, 다섯째 줄의 예에 적용시켜보기로 하겠다. 이들 예는 이미 앞서 2장에서 보았듯이 기존의 음운 이론으로는 설명될 수 없던 것들이었다. 예를 들어 'tek-tekul'을 위에서 사용한 방식으로 분석하면 (11)처럼 된다. 그러나 이 도표로 선정된 표기와 실제 예에서 사용된 표기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이것은 위에서 제시된 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11)⁸

{Red}- te·kul	PartRed	NoCoda	MAX _{BR}	DEP _{BR}
⇒t - te·kul		*	*!	
te - te·kul	*!	*		
teC - te·kul	*!	**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다른 제약을 사용해 볼 수 있다. 상응모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제약으로는 어간과 중첩부위 사이를 비교하는 MAX_{IR}, DEP_{IR}이 있다. 이들 제약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tek-tekul'의 어간 표기를 (12)처럼 다르게 표기하는데 있다. 즉 지금까지 다루어졌던 중첩 현상의 예는 어간과 어기의 표기에 차이가 없지만, 이 예에서는 어간과 어기 사이에 표기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⁹⁾ 이와 같은 방식은 이미 (8)에 제안된 바 있다.

⁸ (11)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PartRed와 NoCoda 사이에 위상을 정해 보았다. 도표에서 0 제약들 사이의 상하는 실선의 사용을 통하여 표시하였다. 그러나 두 제약들 사이의 위상을 a와 b에서와 같이 서로 바꾸어 보아도 (11)과 마찬가지로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이것은 상응모델로 중첩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

{Red}- te·kul	PartRed	NoCoda	MAX _{BR}	DEP _{BR}
⇒t - te·kul		*	*!	
te - te·kul	*!	*		
teC - te·kul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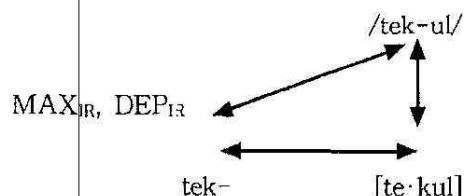
b.

{Red}- te·kul	NoCoda	PartRed	MAX _{BR}	DEP _{BR}
⇒t - te·kul	*		*!	
te - te·kul	*	*!		
teC - te·kul	**!	*		*

⁹ (1bi)과 (1bii) 첫 줄의 예는 어간과 어기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관계를 비교하는 MAX_{IO}, DEP_{IO}는 분석 도표에서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다. 이 제약들이 꼭 표시되어야 한다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Red}- tung·sil	MAX _{IO}	NoCoda	MAX _{BR}	DEP _{BR}
t - tung·sil		**	**!	
⇒tu - tung·sil		**	*	
tung - tung·sil		***!		
tuc - tung·sil		***!		*

(12)



위 모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tek-tekul'의 경우는 어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간을 중심으로 하여 중첩부분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MAX_{IR}과 DEP_{IR}을 제약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 관계를 설명하는데 너무도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제약과 NoCoda를 이용하면 다음에서처럼 한국어에 적절한 중첩 현상의 결과를 선별해낼 수 있다.

(13)

{Red}-tek-ul	MAX _{IR}	DEP _{IR}	NoCoda
t - tek-ul	**!		**
te - tek-ul	*!		**
teC-tek-ul		*!	***
⇒ tek-tek-ul			***

위에 제시된 분석은 마치 미리 고정된 분절음(fixed segment)을 음절말에 정해 놓는 방법과 흡사해 보이기도 하다.¹⁰⁾ 예를 들어 특정 언어에서 중첩부분에 항상 정해진 자음이 음절말음으로 나온다면 그 자음을 항상 중첩부분의 음절말에 오도록 하는 제약을 정하여 해당되는 예들을 어렵지 않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Yip(1990)은 Kainkang에서 중첩 현상이 일어나면 중첩부분 마지막 자음이 항상 'ng'로 끝나는 것을 찾아내고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ng'를 중첩부분의 고정 자음으로 미리 표기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제안한 고정 자음의 사용 여부는 한국어에서는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킨다. 첫째는 한국어의 중첩부분이 과연 고정 자음을 필요할 만큼 규칙적인 자음 분포를 보이느냐 하는 의문이다. (1bii)의 넷째, 다섯째 줄의 예를 보면 중첩부분의 자음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이들 자음들이 다음 음절의 첫 번째 자음과 일치하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중첩부분의 음절말 자음을 고정시킨다는 것은 논리적인 문제를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Yoruba는 중첩부분에 항상 'i'라는 동일

¹⁰⁾ Alderetz, McCarthy, Beckman, Beuna, Gnanadesikan and Urbanczyk (1997)

한 모음이 나타나는데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i'를 중첩부분의 고정 분절음으로 설정한다면 분포적인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다.¹¹⁾ 그러나 한국어의 경우는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자음을 단지 다음 음절의 음절 초두 자음과 같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음에 고정 자음으로서의 잠재력을 부여하는 것은 그리 타당한 방법이라고 하기 어렵다.

둘째는: 중첩부분의 음절구조의 차별이다. 한국어의 중첩은 대부분 CV의 구조로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인데 반하여 (12), (13)에서 다른 예만은 CVC를 중첩부위에 설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비록 (12)에서처럼 어간에서 형태적 구조에 의거하여 CVC가 가능함을 보이기는 하였지만 별도의 구조를 설정해야 하는 타당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데는 누구나 문제점을 있음을 쉽게 인지할 수 있다. 또한 이 예의 CVC 구조는 이미 앞서 2장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됨을 지적한 바 있다.

셋째는: (12), (13)에서처럼 어간·중첩부위 상응(I-R correspondence)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론적 문제이다. McCarthy and Prince(1995)에서는 이미 어간과 중첩부위 사이의 상응이 언어의 분포로 볼 때 별로 많지 않음을 적시하고, 상응모형을 둘로 나누었는데 각각의 명칭은 완전모형(full model)과 기본모형(basic model)로 하였다. 같은 논문에서 완전모형 대신 기본모형을 사용한 이유는 바로 어간과 중첩부위 사이에 있을 법한 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었다.¹²⁾ 그러나 (12), (13)의

¹¹ Yoruba (Alderete, McCarthy, Beckman, Beuna, Gnanadesikan, Urbanczyk (1997))

gbóná	gbí-gbóná	'be warm, hot'
dárá	dí-dára	'be good'
jé	jí-jé	'eat, act of eating'

{Red}-je	MAX _{IO}	H(i)	MAX _{BR}	DEP _{BR}
⇒ j ₁ i ₁ - j ₁ é ₂		ε	ε	i
j ₁ é ₂ - j ₁ é ₂		ε, ε !		
j ₁ é ₂ - j ₁ i ₂	ε !			

위 도표의 초점은 'H(i)'인데, 이 제약은 중첩부분에 항상 'i'가 오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제약이 단지 중첩 현상만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며, Yoruba에서는 모음이 음절의 정상화를 위하여 삽입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i'가 항상 삽입모음으로 나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모음을 중첩 현상 설명을 위한 제약 조건으로 사용하여도 논리적인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도표 원편의 각 표기에서 아래첨자로 사용된 숫자들은 어간과 중첩부분의 일치관계를 표시한다. 이 도표에서는 어간과 어기 사이의 일치관계는 원래의 논문에서는 표시하였지만, 이 논문에서 그 표시는 생략하기로 하였다.

¹² McCarthy and Prince (1995:4)

분석에서는 McCarthy and Prince가 의도한 바와 달리 어간의 정보가 올바른 형태를 취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기본모델 보다는 완전모델을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지금까지 전통적인 생성음운론 방식과 최적이론으로 한국어의 분석을 살펴 보았다. 이미 여러 번 언급하였듯이 이제까지의 방법들은 한국어의 중첩 현상을 설명하는데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다음 장에서는 이들 이론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논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화이론(Harmonic Theory)을 소개하고 이 이론이 지금까지 문제가 되어 왔던 예들을 어떻게 설명하는 지를 살펴 보기로 하겠다.

4. 조화이론과 중첩 현상

4.1 이론 배경 설명

이 이론의 주된 요지는 이론이 제시하는 층위모델(level model)이다. 이 모델을 이론의 중요 모태로서 처음으로 주장하고 이 모델을 직접 언어 현상에 적용하여 이론의 설명 요지를 보인 연구들은 Bosch(1991), Wiltshire(1992), Goldsmith(1993) 등이 있다. 각각의 계층 나름대로의 적용 영역이 제한된 규칙들이 있는데, 이들 규칙들의 적용 양식에 따라 (M,M), (M,W),

The relation between stem and reduplicant -- I-R faithfulness in the diagram -- turns out to play a subsidiary role in the theory, essentially because of a universal metacondition on ranking, which ensures that faithfulness constraints on the stem domain always dominate those on the affixal domains. From this, it follows that I-R faithfulness appears in a subordinate position in every ranking, dominated by I-B faithfulness, significantly limiting its effects. In many ranking, its presence will be completely or almost completely hidden; it therefore becomes convenient to study a simplified model, a proper sub-theory, in which I-R faithfulness is not considered. Let us call this the *Basic Model*.

(어간과 중첩부위 사이의 완전상응과 관련된 관계는 상응이론에서는 주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 말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어간에 관련된 제약들과 접사들에 관련된 제약들을 비교해보면 어간과 관련된 제약들이 항상 위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언어의 현상을 설명하는데 요구되는 상하 설정을 위하여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무리 어간과 관련된 완전상응 조건이라도 어간과 어기 사이에 적용되는 제약이 어기와 중첩부분에 적용되는 제약보다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경우에서 어간과 중첩부위 사이의 상응조건은 전혀 표시되지 않거나 거의 비슷한 상황에 접하게 된다. 이 말은 어간과 중첩부위 사이의 완전상응은 별로 고려되지 않는다는 말과 일치한다. 따라서 상응을 표시하는 모델은 모든 단계를 다 표시한 조건들보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표시하지 않고 간략화 시킨 모델을 제안하게 되었는데, 그 모델 자체가 바로 기본모델이다.)

(W,W), (W,P), (P,P)의 다섯으로 나눌 수 있다.¹³⁾ 각 계층의 성격과 규칙들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표시는 다음과 같다.

(14)

M-level (M,M): 형태적 정보와 관련된 계층으로서 형태소들이 음운 (M,W)기호로 표기된다.

↓
W-level (W,W): 음운적 정보와 관련된 계층으로서 음운적 정보에 (W,P) 따라 위 계층에서 주어진 표기들이 새로이 구성되는 계층이다.

↓
P-level (P,P): 음성적인 표기가 가능한 계층이다. 주어진 표기의 음성적 결과는 이 계층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이 모델이 이미 층위를 전제하였던 어휘음운론의 모델과 SPE를 따른 생성음운론의 도출 과정과 다른 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모델 계층 수의 고정화이다. 어휘음운론에서는 계층을 크게 어휘부와 후어휘부로 나누어 계층을 둘로 고정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휘부 내부에 존재하는 또 다른 계층(stratum)은 언어마다 다르게 보였던 것이 사실이었다. 게다가 어휘부 내부에 설정된 계층들은 언어의 형태적 정보에 따라서 그 구성을 다르게 잡았는데, 영어의 경우 합성어와 관련된 계층을 하위에 설정하였지만, Mohanan(1982, 86)에 따르면 Malayalam에서는 합성어와 관련된 계층을 상위에 설정해야 했다. 한국어의 경우에도 Malayalam처럼 합성어 규칙이 있는 계층을 상위에 설정하여 설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조화이론에서는 세 개의 계층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들의 순서도 항상 고정되도록 하고 있다.

둘째는 조화이론의 모델은 기존의 생성음운론과 달리 도출 과정에 나타나는 중간 단계를 무한정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14)에서 보았듯이

¹³⁾ 조화이론과 관련된 논문들을 토대로 대표적인 음운규칙의 범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이론에서 아래에 표기된 것처럼 동일한 계층 내부에만 한정되어 적용되는 규칙을 조화규칙(harmonic rule)이라고 하며, 이 규칙들의 역할은 각 계층별로 주어진 정보에 입각하여 언어적으로 가장 자연스러운 표기를 도출하는데 있다. 예를 들면 (M,M)에 속하는 삽입 규칙은 한국어의 경우에 영어와 같은 외래어를 한국어 음절구조에 맞게 변화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W,W)의 음절화 규칙도 형태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음절구조를 재조정함으로써 주어진 언어의 음절구조를 지키도록 해줄 수 있다.

(M,M) : 삽입 규칙, 삭제 규칙

(W,W) : 원순음 조화, 음절화 규칙, 영어 강세 규칙

(W,P) : 단음화 규칙

중간 단시로는 W 계층만이 있으며, SPE 방식의 음운 규칙들에 의하여 도래되었던 중간 표기들은 W 계층과 P 계층 속에 모두 포함시킬 수 있음을 여러 설경으로서 보여주었다. 예를 들자면 분절음 삭제나 삽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음운표기의 구조 변화는 새로운 음절표기가 부여되어야 함을 필요로 하고 이에 따른 음절표기의 변화는 새로운 음절표기마다 중간단계를 설정하는 것보다 동일한 성격의 표기들로 보고 W 계층과 같은 동일한 표기에 모두 포함시킴으로서 여러 중간단계가 나오는 것을 미리 방지하였다. 그리고 이 경우에 적용되는 음절표기 부과는 (W,W)로 분류하여 이 규칙이 적용된 모든 표기가 같은 계층에 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4.2 한국어 중첩 현상 분석

지금부터는 (1b)에 예시된 한국어 중첩 현상의 예들을 조화이론이 어떻게 분석하고 설명하는 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 전에 먼저 조화이론에 의하면 한국어의 중첩현상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음을 알 수 있어야 한다. (1b)에 나온 부분 중첩 현상의 예들은 편이상 어간의 음절수에 따라 i, ii로 분류되었지만 조화이론을 중첩 현상 전반에 걸쳐 적용하려면 이들 예를 다시 분류하여야 하며, 분류된 결과는 (15)에 잘 나와 있다. 이 방식에 따르자면 (1b)의 예들을 음운적 중첩 현상과 형태적 중첩 현상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15) i. 음운적 중첩 현상

pə-pəl '버벌' p^ha-p^hak '파팍' k'wa-k'wang '파팡'
tu-tung-sil '두둥실' sa-sal-c'ak '사살작'
pa-sa-sak (pa·sak) '바사삭' ho-lo-lok (ho·lok) '호로록'
t'a-li-ling (t'a·ling) '따르릉' al-lo-lok (al·lok) '알로록'

ii. 형태적 중첩 현상

tek-te-kul '텍테굴' kol-ko-lu '콜고루'
t'al-t'ə-lim '탈떠름' pəs-pə-sis '벗버섯'

위 예에서 말하는 음운적 중첩 현상과 형태적 중첩 현상은 한국어에서 중첩이 적용되는 경우에 이들 중첩 현상이 어간의 어떤 정보에 기초하여 중첩 현상을 발생시키는 현상에 근거하고 있다. 우선 음운적 중첩 현상의 중요한 요점은 어간의 음절구조와 중첩 현상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어간에서 중첩의 목표가 되는 부분은 항상 CVC의 음절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15i)의 예들을 음운적 중첩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5ii)의 예를 자세히 살펴 보면 (15i)의 경우와 아주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예의 구성만 따르자면 어간에서 중첩 현상의 목표가 되는 부분이 CVC가 아니더라도 중첩 현상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중첩 현상이 일어난 중첩부분에 어간형의 중첩 목표가 되는 부분에서는 볼 수 없는 자음을 동반한다는 것인데, 그 자음 또한 별도의 고정 자음이라기 보다는 동일한 어간에서 중첩의 목표가 되지 않은 음절의 초두음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15ii)의 모든 예들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대부분의 예들이 동일한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예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2장, 3장에서 여러 이론들이 동원되었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16)의 예를 보면 (15ii)에 나온 예들을 어떤 근거로 형태적 중첩 현상으로 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아래 예들의 특징은 같은 소리가 반복되는 것인데, 마치 완전중첩 현상처럼 보인다. 각 예에서 반복된 부분은 단독으로 쓰일 때도 의미가 얼마든지 가능한데, 예를 들어 'il-il-i'의 부분을 이루고 있는 'il'은 명사로서 별도로 의미를 가지고 어떤 문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nat^h-nat^h-i'에서 'nath'는 'nat^hkæ'에서 '하나씩'이라는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들 뿐만 아니라 비록 한자의 기원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음절이 독자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면, 이것이 독립 형태소든 종속형태소든 상관 없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다. (16b)의 예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¹⁴⁾

(16) a. kak-kak-iy	'각각의'	san-san-i	'산산이'
il-il-i	'일일이'	səp-səp-hi	'섬섬히'
t'ung-t'ung-i	'뚱뚱이'	nat ^h -nat ^h -i	'날날이'
b. si-si-pi-pi			'시시비비'
pang-pang-kok-kok			'방방곡곡'
sa-sa-kən-kən			'사사건건'
sam-sam-o-o			'삼삼오오'
ca-ca-son-son			'자자손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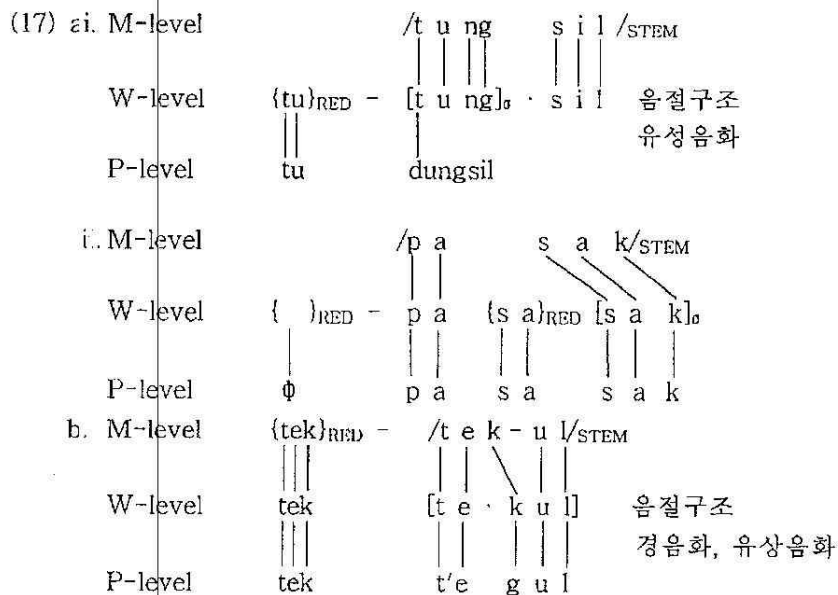
¹⁴ 'si-si-pi-pi'는 원래 'sipi(시비: 是非)'에서 나온 말로서 'si'와 'pi'는 각자 별도의 의미를 가진 단음절 형태소이다. 그러나 이들 형태소는 독립형태소가 아니며, 다른 글자와 어울려야만 비로소 문장 속에 사용될 수 있다.

예) 시각(是正), 시인(是認)

비상(非常), 비공식(非公式)

이들 예들은 형태적 중첩 현상에서 중첩 현상의 목표가 되는 부분이 의미적으로는 독립적으로 인지되어야 함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15ii)도 위에 제시된 예들과 동일한 성격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생각할 수 있다. 'tek-tekul'의 'tek'은 의성어로서 볼 수 있으며, 'kol-kolu'에서 'kol'은 'kol-la'와 같은 단어에 독자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의미의 독립성을 보여 줄 수 있다.¹⁵⁾ 이것은 'nat^h-na^hti'에서 'nat^h'이 'nat^hkæ'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음운적 중첩 현상과 형태적 중첩 현상의 예를 조화이론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지를 살펴 보아야 하겠다. 우선 음운적 중첩 현상은 음절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조화이론의 모델 ((14)를 볼 것)에서 음절 현상이 반영된다고 정의된 W 계층에 음운적 중첩 현상의 예들을 포함시키면 된다. 형태적 중첩 현상은 형태적인 정보와 관련된 M 계층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그 이유는 독립형태소, 종속형태소와 같은 형태론적 개념은 바로 이 계층에서만 그 의미를 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17a, b)의 표기들은 두 종류의 중첩 현상을 조화이론에서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는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¹⁵⁾ (15ii)에 나온 예 중에서 't'əl-'과 'pəs-'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개운하지 않다'는 의미로서 사용되는 예 중에 '떨떨하다 (잘 맞지 않다)'가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어긋나다'라는 의미로서 사용된 것인데 이와 관련된 예로는 '벗나가다 (멀리 나가다)'가 있다.

우선 (17a)를 보면 M 계층에서는 중첩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W 계층에서 음절구조가 결정된 후라야만 중첩 현상이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즉 중첩의 목표가 되는 지점이 $[CVC]_0$ 의 음절구조를 가진 것이 확인돼야만 이 음절의 초두음(onset)과 음절핵(nucleus) 부분에 해당하는 CV가 중첩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된다. (17ai)에서는 어간의 앞 음절이 $[CVC]_0$ 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음절의 일부분인 'tu'가 중첩부분으로 형성될 수 있지만, (17aii)에서는 사정이 사뭇 다르다. 어간의 앞 음절이 단지 $[CV]_0$ 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음절이 중첩 현상의 대상이 되기에 적합하질 못하다. 대신 같은 어간의 두 번째 음절이 $[CVC]_0$ 구조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음절의 초두음과 음절핵인 'sa'를 'sak' 바로 앞에 위치하게 함으로써 부분중첩이 어간의 맨 앞 뿐만 아니라 어간의 중간 위치에서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설명해 줄 수 있다. 이 표기에서 '{ }-Φ' 관계는 'a'가 중첩 현상의 대상이 되지 못함을 가리키는 것이다. (17ai, ii)의 표기 중에 W 계층과 P 계층 사이에 적용되는 유성음화 규칙과 경음화 규칙은 형태적인 정보와 관련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음운적인 환경의 결과를 설명해주고 있다. 유성음화 규칙의 경우는 한국어에서 자음이 유성음 사이에 위치하게 되면 형태적인 정보와 상관 없이 유성음화가 일어난다.¹⁶⁾ 따라서 M 계층과 관련이 없는 W 계층과 P 계층에서 이 규칙을 적용하게끔 할 수 있고, 'dungsil'과 같은 음성적 표기가 가능하다. 경음화 규칙은 유성음화보다 약간 더 복잡하지만, 위 예의 경우는 음운적인 환경만이 변화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즉 한국어에서 어떤 자음이든지 저해음(obstruent) 다음에 있게 되면 경음으로 발음된다. 그래서 'ㄱ, ㄷ, ㅂ, ㅅ, ㅈ' 등의 저해음이 음절말음에 있으면 이 다음에 오게 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각각 'ㄱ', 'ㄷ', 'ㅂ', 'ㅅ', 'ㅈ'으로 발음 된다. 한국어 음운론 연구에서는 이런 현상을 후저해음경음화 규칙(post-obstruent tensing rule)이라고 일컬었다. 이처럼 유성음화와 경음화가 최종 단계인 P 계층에서 나타나는 것은 음성적으로 가장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고자 함인데 이 또한 조화이론이 가장 조화가 잘된 표기를 얻고자 하려는 취지와 매우 잘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화이론의 모델이야말로 바로 앞에서 언급한 언어의 내적 성향을 잘 보여 줄 수 있다.

다음으로 (17b)는 형태적 중첩 현상의 예를 분석한 것인데, (17a)와 달리

¹⁶⁾ 한국어의 'ㄱ, ㄷ, ㅂ, ㅅ' 자음들이 유성음 사이에서 소리의 성격이 유성음에 가까워지는 것은 H-Y Kim(1990)에서 자세히 다루어진 바 있다. 유성음화 규칙이 형태적인 환경에 구애됨이 없이 적용되는 것은 이 현상이 구의 단위를 넘어서도 적용될 수 있는 예들을 보여줌으로써 잘 설명하고 있다.

M 계층에서 중첩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미 (16)의 예들로 보였듯이 'tek'이 독립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형태소로서 단어 전체의 의미 확대를 위하여 스스로를 반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한국어에서 꽤 흔하다고 할 수 있다. 단지 반복의 어간이 되는 부분의 일부분인 'k'가 W 계층에서 음절구조 규칙에 의하여 'ul'의 음절 조두음이 되어 'kul'로 바뀌는 현상은 발음의 편의를 위해서는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¹⁷⁾ 이 현상도 조화이론이 가장 자연스러운 표기를 얻고자 하는 취지를 반영하는 것인데, 음절구조에 변화가 생길 때 단어에 주어진 형태적인 경계에 구애됨이 없이 분절음의 음절 구성을 재배치하는 것은 음운적으로 가장 잘 조화로운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과거의 다른 이론들은 이와 같은 형태적 정보와 음운적 정보의 관련성을 알면서도 이론적으로 이들을 어떻게 잘 보여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내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렇지만 (17b)의 분석은 각 계층별로 분절음 표기의 소속이 달라지는 것을 잘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표기에 나타난 분절음을 각각 연관선(matching line)으로 연결지음으로써 이 분절음들의 소속 및 표기가 계층이 바뀔 때마다 어떤 변화를 겪는 지를 뚜렷하게 보여 줄 수 있다.¹⁸⁾

¹⁷⁾ (16)의 예에서 'il-il-i'를 보면, 원편에서 두 번째 'il'은 형태적으로 독립적인 표기를 보여주고 있지만, 음성적인 표기에서는 이 단어의 끝 모음인 'i'의 음절조두음으로 재배치되어 'i·li·li' [iriri]로 발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적이론에서는 이처럼 분절음의 소속이 달라지는 경우를 이론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처럼 구성원의 소속이 달라져야 하는 경우들을 설명하는 방식 중에 하나로 Onset, Align 제약을 사용한다. 'il-il-i'와 'i·li·li'에서처럼 'i'의 형태적 구조에서의 소속과 음운적 구조에서의 소속이 서로 일치하지 않게 되면 음운적 구조에서의 구성원들의 소속을 따른 표기를 선택하기 위하여 두 제약들 사이의 위상을 Onset ≧ Align과 같이 설정한다. 이와 같은 제약들 사이의 위상은 'i·li·li'를 적절한 표기로서 선택되도록 할 수 있다. 다음의 도표는 이와 같은 현상을 잘 보여 주고 있다.

/il-il-i/			Onset	Align
il	il	i	***!	
⇒ i·l	i·l	i	*	**

¹⁸⁾ (17b)에 있는 각 계층의 표기들은 상용모델에서 보여준 (12)의 경우와 흡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들 둘 사이의 차이점은 연관선의 역할에서 확인해진다. 상용모델은 단지 각 단계에 다른 표기만을 나열하였지만 조화이론에서는 각각의 표기내에 사용된 분절음들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을 연관선을 통하여 보여 줌으로써 각 표기들의 연계성을 보다 확실하게 보여 줄 수 있다. 조화이론에서 연관선이 사용되는 경우는 (M,W)와 (W,P)에 해당하는 규칙에만 국한된다. 조화이론에서는 이처럼 계층의 경계를 가로질러 적용되는 규칙들을 계층상호관련(interlevel) 규칙이라고 한다. 참조 13에서 보인 것처럼 (M,M), (W,W), (P,P)에 한정되어 적용되는 규칙을 계층내부관련(intralevel) 규칙이라고 한다. 두 종류의 규칙들 사이의 차이점은 전자가 계층

5. 맺음글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어의 중첩 현상을 기존의 생성음운론과 최적이론으로 분석하려 할 때와 조화이론으로 분석하려 할 때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본 논문의 초점을 맞추어 보았다.

이미 설명하였듯이 한국어 중첩 이론은 앞선 이론들에서는 충분하게 설명치 못하였다. 그 이유는 'tek-tekul'과 같은 예가 기존의 방식에 적지 않은 문제를 발생시켰기 때문이었다. 최신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최적이론 및 삼음모델에서조차도 이 예는 만족할만한 답을 찾는데 많은 부담을 안겨 주었으며, 이론적으로서 적지 않은 예외를 인정해야만 하는 문제를 발생시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조화이론에서는 이 예와 동일한 범주에 드는 예를 설명해줄 수 있는 근거를 이론의 기본 모델에 입각하여 잘 보여 주었다. 즉 지금까지 동일한 종류로만 알았던 한국어의 중첩 현상을 둘로 나누고 이들을 조화이론의 모델의 각기 다른 계층에 속하게 함으로써 문제를 어렵지 않게 해결하였다. 또한 이렇게 중첩 현상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 이유를 한국어의 다른 예를 통하여 증명해줌으로써 분류의 근거를 마련해 준 것도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어의 중첩 현상을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데 기존의 어떤 이론보다도 조화이론이 훨씬 적절함을 어렵지 않게 보여 줄 수 있다.

참고문헌

- 오관영. 1997. 영어 강세이동과 모음이완 현상: 조화이론적 접근.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최현배. 1937. 우리말본. 서울: 정음사.
- 허웅. 1995. 우리말의 형태론. 서울: 샘문화사.
- Alderete, J., J. Beckman, L. Beuna, A. Gnenadesikan, J. McCarthy and S. Urbanczyk. 1997. "Reduplication with Fixed Segmentism." Ms.
- Archangeli, D. and D.T. Langendoen, eds. 1997. *Optimality Theory*. Blackwell.
- Beuna, I. 1995. "Identity Effects in Morphological Truncation." In *Papers in Optimality Theory: University of Massachusetts Occasional Papers* 13:77-136. Amherst, Mass.

사이에서 해당하는 구성소들의 연관성을 서로 표시함으로써 그 구성소가 계층을 지나면서 변화하는 모습을 추적할 수 있는 반면 후자의 경우는 주어진 계층 내부에서 언어적으로 가정 자연스러운 표기를 찾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Bosch, A. 1991. *Phonotactics at the level of the Phonological Wor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 Chomsky, N. and M. Halle. 1968.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Harper and Row, New York.
- Goldsmith, J., eds. 1993. *Harmonic Phonology*. University of Chicago: Chicago.
- Kang, Seok-keun. 1992. *A Moraic Study of some Phonological Phenomena in English and Korean*.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Kim, Hyeung-Youb. 1990. *Voicing and Tensification in Korean: A Multifaced approach*.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Kim, Young-seok. 1984. *Aspects of Korean Morphology*.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Marantz, A. 1982. "Re Reduplication." *LI* 13:435-482.
- McCarthy, J. J. and A. Prince. 1990. "Foot and Word in Prosodic Morphology: the Arabic Broken Plural." *NLLT* 8:209-283.
- McCarthy, J. J. and A. Prince. 1993. *Prosodic Morphology I: Constraint Interaction and Satisfaction*. M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and Rutgers University.
- McCarthy, J. J. and A. Prince. 1995. "Faithfulness and Reduplicative Identity." In *Papers in Optimality Theory: University of Massachusetts Occasional Papers* 18:249-384. Amherst, Mass.
- Mohanan, K.P. 1982. *Lexical Phonology*. Ph.D. dissertation. MIT.
- Mohanan, K.P. 1986. *The Theory of Lexical Phonology*. Reidel: Dordrecht; D. Reidel.
- Prince, A. and P. Smolensky. 1993. *Optimality Theory: Constraint Interaction in Generative Grammar*. Ms., Rutgers University, New Brunswick, and University Colorado, Boulder.
- Shaw, P. 1987. "Non-conservation of Melodic Structure in Reduplication." *CLS* 23:291-306.
- Steriade, D. 1988. "Reduplication and syllable transfer in Sanskrit and elsewhere." *Phonology* 5:73-155.
- Wiltshire, C. 1992. *Syllabification and Rule Application in Harmonic Phonology*.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 Yip, M. 1992. "Reduplication with Fixed Melodic Material." *NELS* 22:459-473.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서창리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339-700

E-mail: hhyoub@tiger.korea.ac.kr